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03 2022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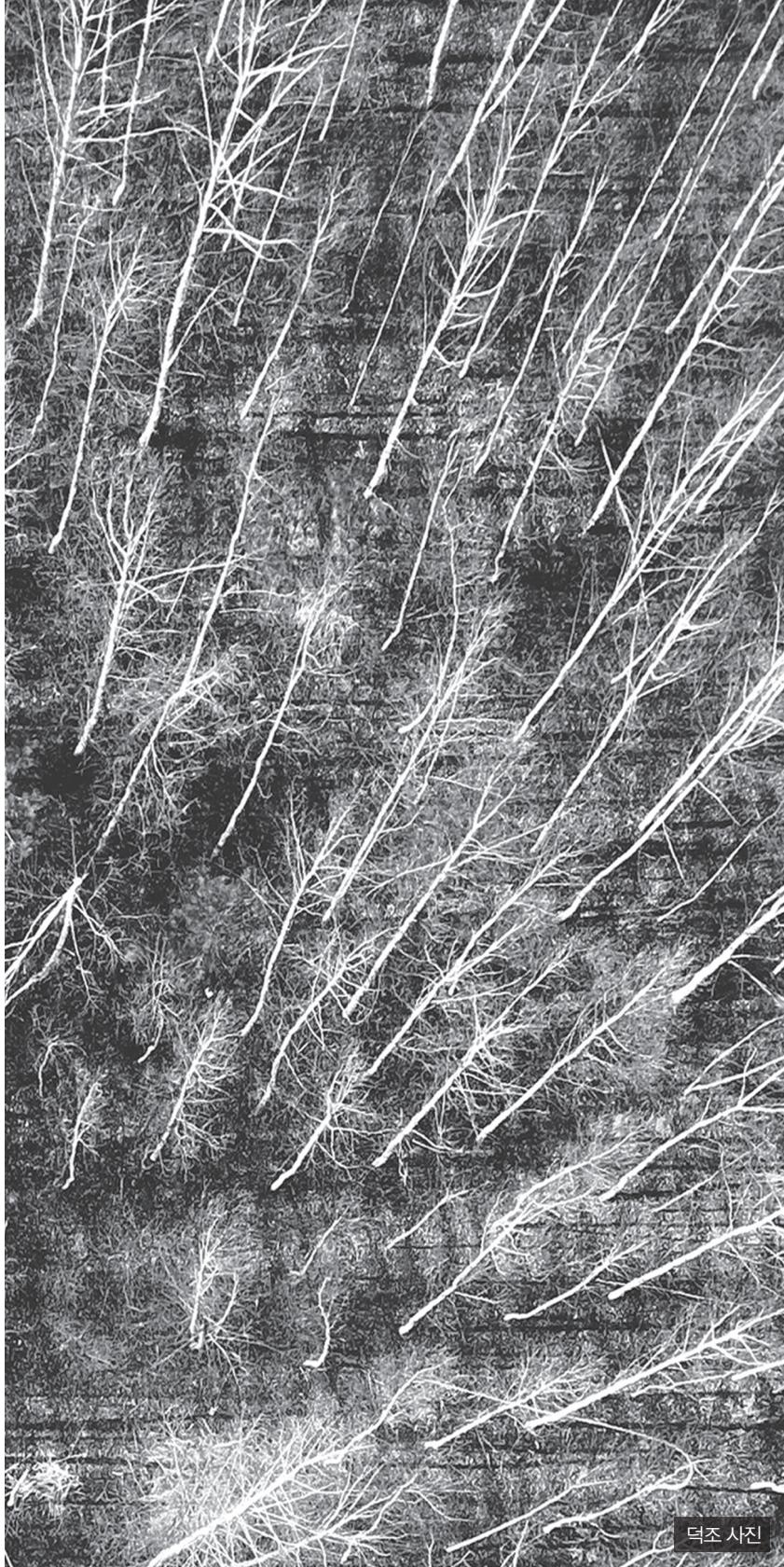
차례

1. 시절 인연
그 지역을 떠나 보라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점점 커지는 세상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자비(慈悲)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법정 스님 흔적
운전면허를 위한 메모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비목구사 선인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봄 인사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 악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2년 3월 1일 발행, 통권 325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그 지역을 떠나 보라

해마다 해동할 무렵이면 봄앓이를 치르는 것이 유별난 내 체질이다. 겨울철에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쌍쌍한데,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그 증상이 찾아온다. 재채기와 콧물과 심할 때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코가 막히고 눈두덩이 가렵다. 그리고 사지가 나른해져 자꾸만 아랫목에 눕고 싶어진다.

이런 증상이 봄내 지속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 주어야 한다. 이래서 나는 봄을 체질적으로 싫어한다. 얼어붙었던 겨울의 자리에 따뜻한 햇살과 촉촉한 흙과 새싹과 산들바람이 정답진 하지만, 그런 증상을 감당해 내기가 힘겹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봄앓이’라고 하는데, 의사들 말로는 ‘알레르기’라고 한다. 한번은 아는 수녀님이 내 봄앓이를 보고 자기도 나와 똑같은 증상이었는데 한약을 먹고 말끔히 나았다고 하면서, 부득부득 그 한약방에 데려가 진찰을 받고 약을 지어다 먹게 했다. 그렇지만 체질이 달라서 그랬는지 인연이 닿지 않아서였는지 내게는 아무 효력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의사도 봄앓이를 하는지 코 먹은 소리에 목까지 잔뜩 쉬어 있었다.

내가 아는 몇몇 전문의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 지역을 한번 떠나 보라는 것이다. 이 말에 나는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제작년 봄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마침 송광사 분원이

있어 그해 봄을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 고장에도 알레르기 환자가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 그곳에서는 북쪽인 오리건주로 가면 괜찮다고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말짱했는데 동부인 뉴욕과 보스턴 쪽에 가니 다시 재채기와 콧물이 났다. 돌아오니 아무렇지도 않았다. 증상치고는 참으로 희한한 증상이다. 작년 봄에 이 봄앓이로 시달리다가 불일로 부산에 며칠 가 있는 동안에는 언제 그랬느냐싶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산으로 돌아오니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다시 시작이었다.

지난 2월 말께부터 그 알레르기 양이 옛정을 잊지 않고 다시 나를 찾아 주었다. 나는 속으로 ‘너 또 시작이구나. 알았다 알았어. 바쁜 일 대강 해치우고 3월 중에는 바닷가로 너를 데리고 가마.’라고 달래었다. 병이란 살살 달래 주어야지 모른 체하면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버릇이 있다.

그저께 나는 남쪽 바닷가 한 어촌으로 간단한 짐을 꾸려 가지고 봄앓이의 피점을 왔다. 말하자면, 그 지역을 떠나 본 셈이다. 아는 신도가 방을 마련해 주어 옮겨 온 것이다. 청송맞게 자취도구를 챙겨 가지고 왔다.

산에서 살다가 바닷가로 오니 우선 공기의 질이 다른 것 같다. 깊이 숨을 들이쉬면 숲 향기 대신 염분이 땀 바다 내음이 묻어온다. 문을 열면 출렁거리는 바다가 있고, 기슭을 훑는 물결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어선들이 들고 나는 통통거리는 소리와 갈매기와 물새들의 날갯짓과 우짛는 소리가 있다.

바다에 일몰이 오면 찬란한 빛의 조화를 지켜보는 침

목의 시간이 있다. 항포구 쪽에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이 물결 위에서 일렁거린다. 산중의 밤은 이속하고 적막한데, 밤바다는 적막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조금은 호사스럽기까지 하다. 바다는 늙을 줄을 모르는 것 같다. 잠시도 가만있지를 못하고 일렁이고 출렁거린다.

산처럼 아늑하고 든든하고 차분한 맛은 없지만, 늘 무엇인가 떠나보내려 하고 떠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생동감이 있다. 산과 바다는 이와 같이 사뭇 대조적이면서도 그 뿌리는 인간의 대지에 함께 이어져 있다.

저 멀리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 위에도 줄줄이 불이 켜져 있다. 새벽녘에 보면 마치 진주로 된 목걸이로 육지와 섬을 잇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저 줄줄이 이어진 불빛들. 거기서 나는 인간의 체온 같은 것을 느낀다. 불빛이란 단순히 어둠만을 밝히는 것이 아닌 듯싶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뽀뽀이 흩어진 인간을 하나로 이어 주는 혈맥처럼 생각된다.

저 줄줄이 이어진 불빛들을 보고 있으니 몇 장면의 영상이 떠오른다.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는 동안 멀리 않은 그리피스 파크에 천문대가 있어 자주 올라갔었다. 거기 올라가 바라보면 1천만이 사는 광활한 도시가 한 눈에 들어온다. 특히 밤에 올라가면 야경이 장관이다. ‘보석의 바다’라고 할지 ‘불꽃의 바다’라고 할지…….

인간은 어째서 이런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사는지 새삼스러운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전에 지나온 할리우드의 휘황찬란한 밤의 활기도 여기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묻혀 버린다.

천문대 안에는 천장에 스크린이 장치되어 반쯤 누워서 천체의 신비를, 별들의 잔치를 볼 수 있도록 해 놓았

다. 한 시간짜리 이 필름을 보고 있으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무변한 신비의 공간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우주에서 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한 줌의 흙덩이 같은 것.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먼지끼리 아웅다웅 다투고 싸운다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게 여겨진다. 때로는 이런 우주적인 안목으로 인간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다.

천문대 한쪽에는 우주적인 저울이 설치되어 있다. 1년 전 그 저울에 올라섰을 때 내 체중이 지구에서는 140파운드인데, 달에서는 겨우 25파운드밖에 안 되었다. 내 몸의 세 곱쯤 되어 보이는 미국인 똥보 아줌마는 자기 몸무게를 달의 것으로 친다고 하면서 깔깔댔다. 그런데 주피터 별에서 내 체중은 무려 454파운드나 되었다. 그 주피터 별빛이 우리 육안에 들어오기까지는 4,600광년이나 된다니, 그리고 태양보다 4만 배나 더 밝다니 우주란 도대체 무엇인가?

110층에 높이가 435미터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든 건물인 바람의 도시 시카고에 있다. 시어스 타워. 전망대가 있는 103층까지 엘리베이터로 단 1분밖에 안 걸린다. 미국 제2의 거대한 도시를 시어스 타워에서 바라보는 야경 또한 장관이다. 바둑판처럼 네모진 거리로만 되어 있다면 야경은 너무 단조할 뻔했다. 그런데 사이사이 대각선이 질러 있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낮 동안 세계적으로 이름난 거대한 건축물들을 구경하면서 인간의 능력이 새삼스레 대견하게 여겨졌으면서도, 한편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피땀 흘

려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바로 그 손으로 언젠가는 파괴하여 잿더미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인류가 저지른 그 무수한 살육과 파괴의 전쟁이 바로 그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자행되지 않았던가.

거대한 건축물은 아무래도 비인간적이다. 부에 따른 과시와 건물의 기능만을 문제 삼고 그 건축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서양 문화는 일찍부터 자연에 도전하고 그를 정복하기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동양 문화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간적인 건축물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주지만, 비인간적인 건축물은 인간을 압도하려고 든다.

밤의 불빛에 대한 또 하나의 영상은 야간 비행에서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밤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오는 도중,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지는 지상의 등불은 캘리포니아의 진주 목걸이처럼 느껴졌다. 영롱한 불빛의 가느다란 선이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놓인 그 1번 도로를 따라 내려온 적이 있지만 밤의 불빛으로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육지와 섬을 이어 주는 다리 위에 밤안개가 내리고 있다. 그 다리 아래로 몇 척의 어선들이 오고 간다. 산에서는 벌써 잘 시간인데 바닷가에 오니 잠이 안 온다. 밤바다의 영향인지 내 안에서조차 꾸만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 지역을 떠나보라’는 효험이 난다면 나는 올봄을 이 바닷가에서 보내고 싶다.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주세요

점점 커지는 세상

지난 2월에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하셨습니다.

3월 선물은 '점점 커지는 세상'입니다.

소부경전 중 여시어경(如是語經) 102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아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와
변뇌의 소멸에 대해서 말한다.

알려지지 않은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에 대한 회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존에 의해 잘 말해진 법은

현생적이고, 즉시적인 것이다.

눈이 있는 자는 와서 보라고 했듯이,

열반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지자(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세계에 관계된 것은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에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상, 그 자체를 삶의 소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코살라의 서울 사위성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실 때였습니다. 코살라의 왕 파세나디는 말리카 왕비와 함께 성의 높은 다락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왕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부처님의 독실한 신자입니다.

“말리카여,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저에게는 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남편 앞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이라고 할텐데,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정 떨어지는 소리 같지만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들은 다락을 내려와 성밖에 있는 기원정사로 부처님을 찾아가 이에 대한 부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이들은 이따금 부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에 부처님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윽고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평범한 이야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 정신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소.

그러나 어디로 날아가든지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아낼 수 없소.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더없이 사랑스럽소.

자기가 사랑스러운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오.”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소중한 줄 알면 남도 소중한 줄 알라는 교훈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반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신이 소중한 줄 알면 네가 다스리는 국민도 소중한 줄 알라는 이 가르침은 바로 왕에게 필요한 교훈입니다. 은연 중에 그런 말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타인에게로 확산, 불살생의 덕목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바꾸어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있어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처님 설법에 있어서 바탕을 이룹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비근한 이야기로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아함경》의 보편적인 형식입니다. 세상을 살아 가면서 자기 표준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을 한정된 자로만 재려고 하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게 됩니다. 맞은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로만 세상을 재려고 하지 말고, 맞은편 자로서도 쫓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분명히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됩니다.

3. 법정 스님 따라하기

자비(慈悲)

143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한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144 만족할 줄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관이 안정되고 총명하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145 다른 식자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146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겁에 떨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치건 짧고 가는 것이건, 또는 조잡하고 거대한 것이건,

147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또는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거나, 모든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148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꿰뚫어 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149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150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함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151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 신성한 경지를 범주(梵住)라고 한다.

152 온갖 사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행(戒行)을 지키고 지견(知見)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을 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母胎)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 모태에 드는 일이 없다는 것은 생사에 윤회가 없다는 말이다.

강론

《숫타니파타》에 수록된 여러 경전 중에서도 이 〈자비〉는 아주 짧은 경전이다. 분량은 짧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안의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들로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 일상적인 우리에게도 삶의 의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소참법문

수행하는 데에 마魔 없기를
바라지 말라.

다섯째,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풀리면 뜻이 경솔해지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기를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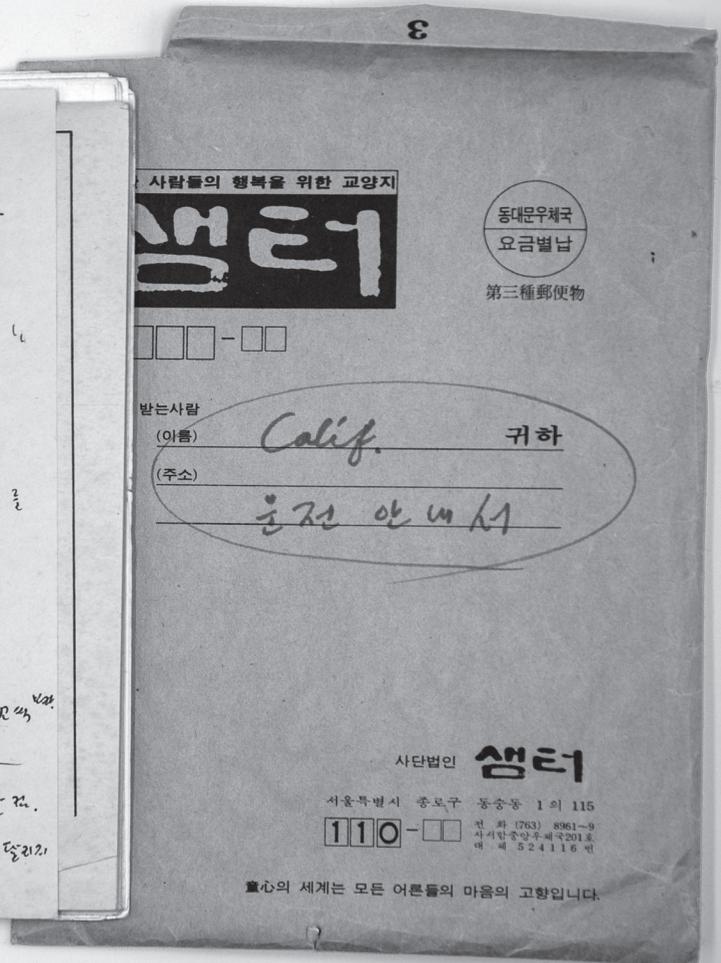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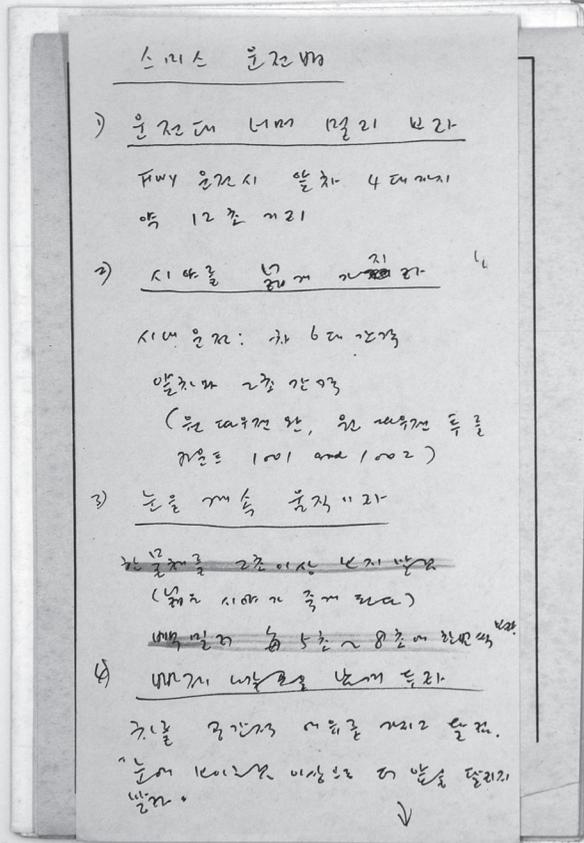
일이 너무 쉽게 풀리면 안 좋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면 쉽게 무너져요. 공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실 공사라는 게 뭐니까?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이루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해요. 어려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이다음에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면 극복하지 못해요.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다고요.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참고 견뎌야 할 사바세계예요.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려면 면역력을 높여야 해요. 일이 쉽게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모든 것에는 차례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도 사계절의 질서가 따라야 움이 트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어요. 너무 쉽게 풀리기를 바라지 마세요. 뜬을 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많은 세월을 두고 일을 성취하라.’

오랜 세월이 쌓여야 기량이 커지고 도량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아직 내 그릇이 그런 도량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일을 성취한다면 교만해지고 안이해집니다.

5. 법정 스님 흔적



운전면허를 위한 메모

법정 스님께서 1985년 미국 LA를 방문하셨는데 당시 주변의 권유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스님은 독서를 할 때나 여행을 하면서 늘상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여지없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봉투에 'Calif.(캘리포니아) 운전 안내서'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운전대 너머 멀리 보라”

이 글귀가 마치 우리에게 “삶 너머 멀리 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6.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비목구사 선인

선재동자는 이렇게 말한 후 합장하고 서서 말했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듣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말씀해 주소서.”

비목구사는 무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이 동자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느니라. 이 동자는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보시한다. 이 동자는 또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며, 부처님의 지혜 바다를 관찰하며, 온갖 감로의 법비를 마시려 한다. 이 동자는 또 광대한 법 바다를 헤아리려 하며, 중생을 지혜 바다에 머물게 하려고 하며, 광대한 자비 구름을 일으키려고 한다. 지혜의 달로 세상을 두루 비추려고 하며, 세상의 지독한 번뇌를 없애려고 하며, 중생의 온갖 선근을 기르려고 한다.”

이때 선인의 무리가 그 말을 듣고는 갖가지 미묘한 향과 꽃을 선재동자에게 흠고 절을 올린 후 에워싸 공경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 동자는 반드시 모든 중생을 구호하리라. 반드시 지옥의 고통을 없애리라. 축생의 길을 끊을 것이며, 연라왕의 세계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여러 험난한 문을 닫게 할 것이며, 애욕의 바다를 마르게 할 것이다. 중생의 괴로움덩어리를 없앨 것이며, 무명의 어둠을 깨뜨릴 것이며, 탐애의 결박을 끊을 것이며, 복덕의 큰 철

위산으로 세상을 에워쌀 것이며, 지혜의 수미산으로 세상을 드러낼 것이며, 청정한 지혜의 해를 뜨게 할 것이며, 선근의 법장法藏을 열어 보일 것이며,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험하고 평탄함을 알게 할 것이다.”

비목구사 선인이 여러 선인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누구든지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면 반드시 지혜의 도를 성취할 것이다. 이 선남자 또한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발했으므로 마땅히 모든 부처님의 공덕 땅을 깨끗이 할 것이다.”

선인은 다시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무승당해탈無勝幢解脫을 얻었노라.”

선재동자는 물었다.

“무승당해탈은 그 경지가 어떠한니까?”

이때 비목선인은 오른손으로 선재의 정수리를 만지면서 손을 잡았다. 그러자 선재동자는 갑자기 자신의 몸이 시방으로 10불찰佛刹 미진수 세계에 가서 10불찰 미진수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음을 보았다. 그 세계와 모인 대중과 부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장엄해 있음을 보았고, 또 부처님께서 중생이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 법을 설함을 듣고, 한 글자 한 구절까지도 모두 통달해 따로따로 받아 지녀 뒤섞이지 않았다.

또 저 부처님께서 온갖 지혜로 서원을 깨끗하게 다스림도 알고, 부처님께서 청정한 서원으로 힘을 성취함도 알고, 부처님께서 중생의 마음을 따라 나타내는 모습도 보고, 부처님의 큰 광명 그물의 갖가지 빛이 청정 원만함도 보고, 부처님의 걸림 없는 지혜와 큰 광명의 힘도 알았다.

보살의 무승당해탈의 지혜 광명이 비치자 선재동자는 비로자나장삼매毘盧遮那藏三昧의 광명을 얻었다.

선인이 선재동자의 손을 놓자 선재동자는 자신의 몸이 본래대로 있음을 보았다.

선인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생각하는가?”

선재동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기록하신 선지식의 힘인 줄을 압니다.”

선인이 말했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무승당해탈을 알 뿐, 저 보살 마하살이 수승삼매殊勝三昧를 성취해 어느 때나 자유자재하고 잠깐 동안에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내고, 부처님의 지혜 등불로 장엄해 세상을 두루 비추며, 한 생각에 삼세三世 경계에 두루 들어가 형상을 나누어 시방 국토에 두루 가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또 지혜 몸이 법계에 들어가 중생의 마음을 따라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의 근성과 행을 관찰하고 이익케 하며, 밝은 광명을 놓아 사랑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 공덕의 행과 뛰어난 서원과 장엄한 세계와 지혜의 경계와 삼매의 행할 바와神通 변화와 해탈 유희와 몸의 차별과 음성의 청정함과 지혜의 광명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이사나伊沙라는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 승렬勝熱 바라문이 살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도를 닦느냐고 물으라.’”

선재동자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고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봄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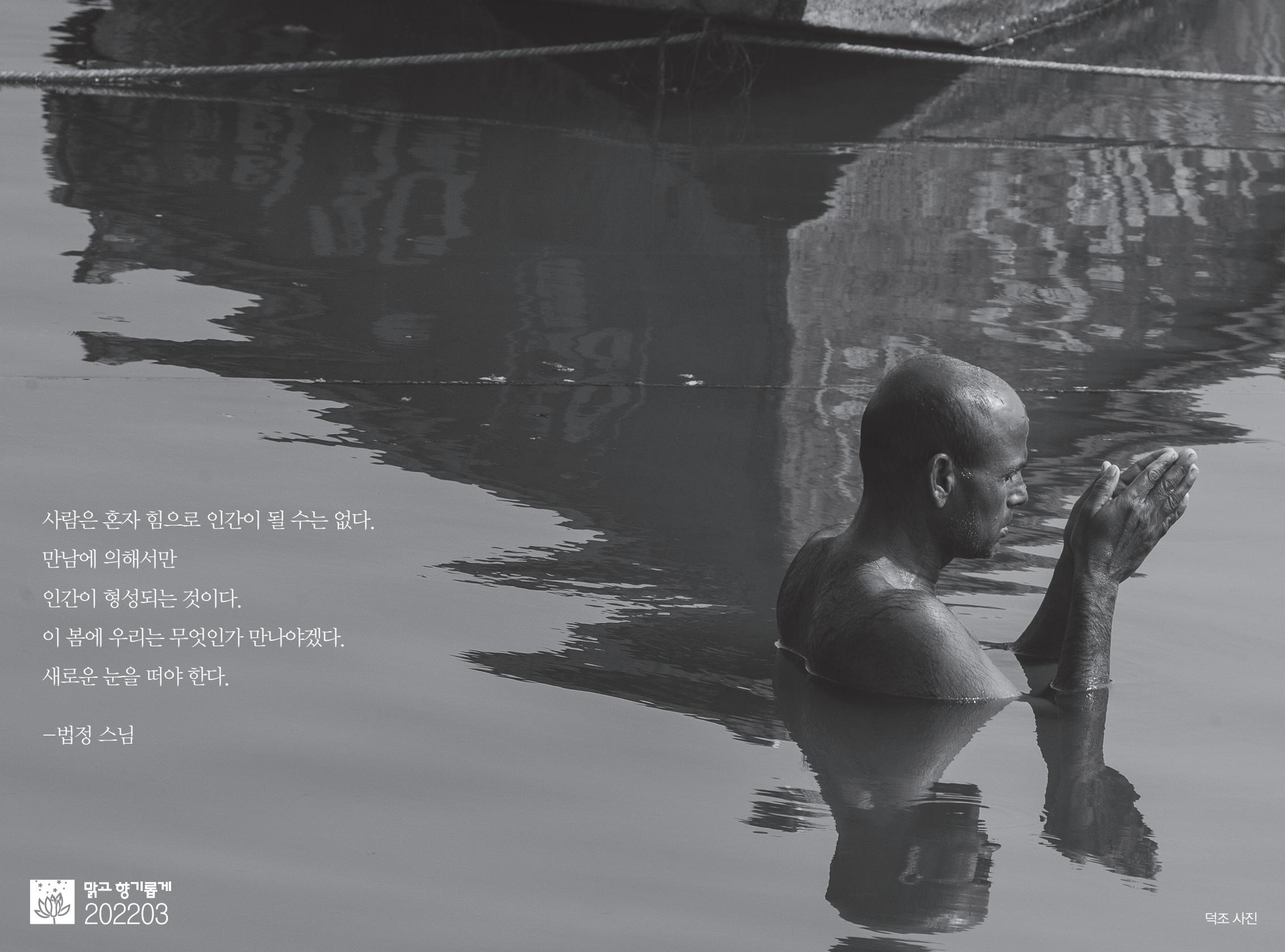
새소리 들으며
새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봄 인사 드립니다

계절의 겨울
마음의 겨울
겨울을 견디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치가 나무 꼭대기에
집 짓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높이 올라가자

절망으로 내려가고 싶을 때
우울하게 가라앉고 싶을 때
모든 이를 골고루 비추어 주는
봄 햇살에 언 마음을 녹이며
당신께 인사를 전합니다
햇살이야말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봄에 우리는 무엇인가 만나야겠다.
새로운 눈을 떠야 한다.

-법정 스님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 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법정 스님 입적 12주기 추모법회 원만회향

법정 스님 기일(음력 1월 26일)을 맞아 지난 2월 26일 길상사 설법전에서 12주기 추모법회가 명종 5타와 개회사, 삼귀의, 반야심경, 영단 삼배, 입적, 헌향, 헌다, 헌공, 헌화, 법정 스님 영상 법문, 추모사, 헌음, 사홍서원 순서로 봉행되었습니다.

추모 차례제는 '코로나19'의 거리 두기에 따라 설법전에는 송광사 스님 및 상좌 스님, 길상사의 사중 스님, 신행단체장, 합창단, 맑고 향기롭게 내빈만 들어가고 일반 신도들은 설법전 문밖과 뜰에서 참배하였습니다. 추모법회가 열리기 전 스님들과 신도들은 법정 스님의 '진영(眞影)'을 모신 진영각을 찾아 미리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길상사에서는 참배객을 위해 답례 떡을 제공하였고, 본회 이사장 덕조 스님이 보시한 법정 스님의 법문 음성인 담긴 오디오북(USB)을 기념품으로 나눠 드렸습니다.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봄부터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니 뜻을 함께하실 분은 사전에 사무국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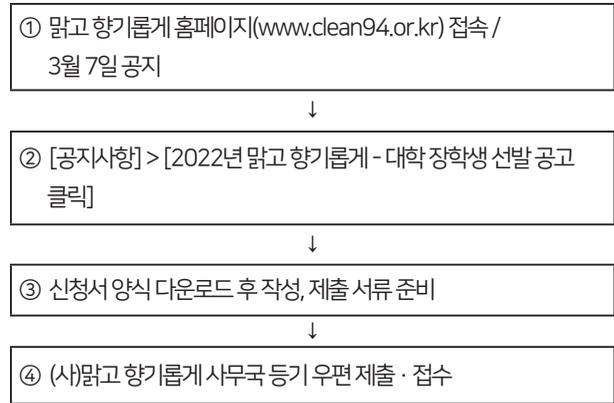
2022년 '맑고 향기롭게 대학생 장학생' 공모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청정한 마음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불교 인재를 선발합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을 더욱 크게 계발하고, 본 회의 발원 취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나아가 세상을 밝히는 풀씨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선발 인원 : 20명 내외
- 지원 금액 : 300만 원(분할 지급)
- 지원 기간 : 1년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한 우수한 인재에 한하여 졸업 시까지 선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아래 가, 나, 다, 라 모두 충족되어야 함)

구분	신청 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으로 (사)맑고 향기롭게 발원 취지에 공감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닌 2년제 이상 대학생
나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 & 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가능자(예: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 단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등록된 종단의 사찰, 단체에 한함
다	법정 저소득층 및 소득 구간 5구간 이하
라	* 직전 학기 평균 학점 B학점 이상인 학생 학점 4.5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5 이상 학점 4.3 만점의 경우 총 평점 3.3 이상

- 서류 접수 : 4월 1일(금)부터 4월 15일(금) 우편 소인까지
-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안내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장학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전체 학기)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초본(남학생의 경우 군필 여부 기재) 4. 장학금 신청 학생 통장 사본 5.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가 사찰 & 불교 단체 소속 신도(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예 : 신도증, 추천서, 확인서 등)
법정 저소득층 * 1~6 서류 중 해당서류만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사할근로 확인서 4. 한부모가족 증명서 5. 장애연금 · 수당 · 장애아동 수급자 확인서 6.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적합 또는 변경만 해당)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기타 저소득층 * 1~2 서류 모두 제출	1. 부모(보호자)의 2021년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소득 분위(구간) 통지서
추가 (해당 시)	1. 자원봉사 활동 증명서 2. 각종 수상 실적 등 3. 불교 사찰 & 단체장 추천서

- 선정 발표 예정일 : 5월 17일(화) 본회 홈페이지, 개별 및 학교로 통보
- 접수처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장학담당자 앞
- 문의처 : 맑고 향기롭게 02)741-4696(총무팀)
-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장학금 후원 동참 계좌 :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맑고 향기롭게

3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3일(목)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법정 스님 책 읽기 필사모임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모임 : 매주 목요일 / 오후 1시 / 세계일화실

- 정기 재정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 살라잡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 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등학생 공부방 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년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랑을 받습니다. 문의와 접수는 길상사 종무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 원	영가등	10만 원
가족등	10만 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 원

● 초하루기도 및 법회

일시 : 3월 3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3월 5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보름기도

일시 : 3월 1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지장재일

일시 : 3월 2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 관음재일

일시 : 3월 26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3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 / 법회	날짜	시간	장소
초하루기도	3월 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3월 5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보름기도	3월 17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3월 20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3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